

釜山地域의 朝鮮時代 金石文의 研究展望과 活用方案

김 철 범

(경성대 한문학과 교수)

차 례

- I. 머리말
- II. 부산지역 조선시대 금석문의
분류와 현황
- III. 부산지역 금석문의 연구전망
- IV. 부산지역 금석문의 활용방안
- V. 맺음말

I. 머리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가. 이름을 남기고 어떤 일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기억이 존재하며, 그 기억을 언어와 문자로 남겨 대대손손 전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모든 역사와 문헌이 이 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특히나 금석문은 이런 욕망이 가장 강한 문헌의 하나이다. 인물의 행적과 존재,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유적 등의 기억을 쉽게 마모되지 않는 단단한 금석에 새겨 전함으로서 오래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념해주기를 목적하고 있다.

그러나 금석문이 다른 종류의 문헌들과 또 다른 특성은 바로 기념해야하는 대상이나 사실이 존재하거나 발생한 그 현장에 기록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금석문은 현장과는 무관한 특정 지역의 도서관이나 개인의 서고에 수장되어있는 일반 문헌들과는 달리 역사적 현장과 분리될 수 없는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 서책류의 문헌자료는 주로 대도시의 특정 도서관에 집중되어 있지만, 반면 금석문은 전국 각 지역 각 고을마다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부산은 옛 행정구역상으로 동래부를 중심으로 김해부와 기장군의 일부가 편입되어 광역도시를 이루고 있다. 이 곳에 이 지역의 옛 문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양이 사라졌거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데 반해, 금석문은 역시 거의 그대로 남아전하고 있다. 이것은 부산만의 현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편이다. 그러나 이 금석문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

구하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그렇지만 보존이나 연구 등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그다지 보이질 않았다.¹⁾ 전체 금석문의 절반 이상을 善政碑와 같은 개인의 공적을 기념하는 비석이 차지하고 있어, 사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직 금석문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만한 접근방법을 찾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근래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지방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몇몇 지방의 솔선으로 자기 지역의 금석문 자료에 대한 조사 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부산에서도 1984년 부산산업대학교(현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부산시 금석문』으로 정리 보고한 바 있었지만, 부산의 광역화 이후 2002년에 와서 다시 『부산금석문』을 간행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소재 금석문 자료를 거의 망라하게 되었다. 이것은 금석문을 판독하고 우리말로 번역까지 해놓은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1차 자료로서 정리된 자료집일 뿐, 다시 제2차·3차의 정리와 연구에 활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성과를 계기로 이제 본고는 부산지역의 조선시대 금석문을 대상으로 금석문 연구의 전망과 그것의 활용 방안에 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부산지역 조선시대 금석문의 분류와 현황

『부산금석문』에는 모두 471기의 금석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부산의 금석문 가운데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가능한 많이 수록하

1) 사료적 가치가 큰 일부 금석문의 경우는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지만, 본고에서는 일반 금석문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려는 취지에서 1945년 해방을 전후한 근대시기의 것까지 두루 포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립 시기가 조선시대로 분명히 명기된 금석문이 모두 196기가 된다.²⁾ 이것을 시기별로 보면 17세기가 17기, 18세기가 52기, 19세기가 112기, 20세기(~1910)가 15기, 시기 미상이 64기이다.

이와 같이 16세기 이전의 것은 하나도 남아 전하는 것이 없고, 가장 이르다고 보는 것이 1609년 범어사를 방문한 동래부사 李安訥(1571~1637)이 惠晶上人(미상)의 부탁으로 지은 시를 그 당시 범어사 청룡암³⁾에 각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어사 청룡암시’이며, 비석으로는 1635년에 세워진 ‘利涉橋碑’가 가장 이른 것이다. 한편 19세기의 것이 112기로 가장 많이 남아 전하는데, 물론 시기가 가까운 때 문이기도 하지만, 이 중 善政碑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이 당시 선정비가 유행처럼 세워졌던 때문이라고 본다. 이 외에도 건립 시기가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은 금석문 가운데 조선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또 64기 정도가 있다. 건립 시기가 마도되어 판독이 되지 않거나, 비석의 일부가 부서져 나간 경우, 또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干支만을 명시한 경우가 그렇다. 어쨌든 이 모두를 합하면 조선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부산지역에 전하는 금석문은 대략 260여기에 이른다.

이 금석문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事蹟碑·紀功碑·壇碑·頌德碑·墓碑·旌閭碑·條約碑·詩碑·標識石·巖刻文 등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⁴⁾,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 조선시대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조선을 합병한 1910년 8월을 기점으로 구분하였다.
 3) 청룡암은 범어사 경내 지장전과 독성전 사이 산령각 아래에 있는 큰 바위이다. 그 바위에는 그 곳을 방문한 동래부사의 이름과 유람객들의 이름이 도처에 각석되어 있다. 그 바위의 정면 평평한 곳과 아래쪽 움푹 들어간 곳에 두 편의 시가 각석되어 있다.

	事蹟碑	紀功碑	壇碑	頌德碑	墓碑	旌閭碑	條約碑	詩碑	標識石	巖刻文	계
17C	3	-	-	11	-	-	1	-	-	2	17
18C	12	-	3	30	4	2	-	-	-	1	52
19C	6	1	9	87	2	4	3	1	-	-	113
20C	1	-	-	14	-	-	-	-	-	-	15
미상	1	2	20	32	2	1	-	1	2	3	64
합계	23	3	32	174	8	7	4	2	2	6	261

事蹟碑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나 또는 어떤 건축물이나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곳에 그와 관련된 사실의 경위를 기록하여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동래부민들이 하천(현재 온천천)을 건너는데 편리케 하고자 세운 利涉橋(현재 낙민동 소재)를 기념하는 ‘이섭교비’(1635)가 가장 오래되었고, 이어 ‘東萊南門碑’(1670)와 ‘子城碑’(17C)가 임진년 왜적의 침략에 저항했던 곳인 동래읍성의 남문과 부산진 자성의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18세기에 세워진 사적비로는 강서구 옛 김해의 ‘大夫橋碑’(1705)와 ‘金海明月寺事蹟碑’(1708)가 있고, 동래구의 ‘壬辰戰亡遺骸之塚碑’(1731)와 ‘萊州築城碑’(1735) ‘溫井改建碑’(1766) ‘四處石橋碑’(1781), 동구의 ‘忠壯公鄭撥戰亡碑’(1761)와 ‘忠壯公鄭撥戰亡遺址碑’(1766), 기장군의 ‘清江橋碑’(1758)와 ‘客舍建成碑’(1784), 사하구 물운대에 있는 ‘忠臣鄭運殉義碑’(1798), 그리고 남구 부산박물관에 옮겨져 있는 ‘西門外石橋碑’(1781) 등이 있다. 사적비로는 전 시기를 통털어 18C에 가장 많이 세워졌는데, 임진년 전쟁에 순절한 인물들의 죽음을 기리는 비석과 교량과 성곽 또는 건물에 대한 사적을 기념하는 비석들이 주를 이룬다. 19세기에 들어서는 동래지역

4) 김철범, 『부산시 금석문의 현황과 보존』, 『문화전통논집』 11집,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2003.12. 참조

에 ‘金井山城復設碑’(1808)와 ‘調井堰碑’(1827)가 세워졌고, 사하구에 ‘僉使尹興信殉節碑’(1841)가, 기장군에서는 ‘帝釋洞新築堤堰碑’(1810)·‘帝釋洞堤堰碑’(1831)와 ‘水樞橋重築碑’(1855)가 세워졌다. 그리고 1906년 마지막으로 초량왜관의 柔遠閣에 근무한 小通事들을 기념하는 ‘柔遠閣先生埋安感古碑’가 세워졌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적비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유원각의 설치와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적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紀功碑는 역사상 어떤 인물의 특정한 업적을 기리거나 중요한 토목공사의 완공과 노고를 기념하여 그 현장에 세운 것이다. 부산지역에는 근대시기 이후에 여러 가지 토목공사의 완공을 기념하는 비석들이 세워진 바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이런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앞서 사적비였던 ‘이섬교비’나 ‘금정산성부설비’ ‘조정언비’ 등의 것이 기공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선시대의 기공비로는 특정 인물들의 공적을 기념하여 세워진 것이 있는데, 임진년 전쟁 당시 송상현 부사의 시신수습을 맡았던 두 관노의 공적을 기념한 ‘故官奴鐵壽邁同效忠碑’(1800)가 있고, 사명당대사의 공적을 기려 부산첨사 任衡準이 세운 ‘惟政大師忠義碑’(미상)를 볼 수 있다. 기장군에 있는 ‘處土月城崔榮壽功績碑’의 경우는 한 부락의 주민들이 최영수의 은공을 감사하는 뜻에서 세운 것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나 정신사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공로를 쌓은 분을 특별히 기념하여 기일이나 생일에 제사를 올리곤 했는데, 묘소나 기념할만한 특정한 장소에 제단을 놓고 앞에 세운 비석이 壇碑이다. 비석의 정면에 제를 올리는 대상의 직함과 이름을 새겨두는데, 일종의 神位로서 그 기능을 갖는다. 주로 임진년 전쟁에서 순절한 분들의 忌祭壇碑과 이 지역의 官長으로 부임했던 인물들 가운데 이 곳 출신인 분들의 生祠壇碑와 추모비인 去思壇碑가 주를 이룬다. 우선

임진년 동래성 전투에서 순절한 분들의 것으로 宋公壇에 ‘宋公壇碑’ ‘宋鳳壽殉難碑’ ‘申汝櫓殉難碑’ ‘梁朝漢殉難碑’ ‘宋伯殉難碑’ ‘金祥殉難碑’ ‘金希壽殉難碑’ ‘金蟾殉難碑’ ‘盧盖邦殉難碑’ ‘趙英珪殉難碑’ ‘義女碑’ ‘同時死亂民人位碑’ ‘同時死亂婦女位碑’ ‘文德謙殉難碑’ 등이 있고, 부산진에서 순절한 분들의 것으로 鄭公壇에 정발장군의 ‘鄭公壇碑’와 ‘贈左承旨李庭憲碑’ ‘戰亡諸人碑’ ‘烈女愛香碑’ ‘忠奴龍月碑’가 있으며, 다대진에서 순절한 분들의 것으로 ‘義士尹興悌碑’와 ‘殉亂土民碑’(1834)가 있고, 수영성에서 순절한 분들을 위한 ‘義勇諸人碑’(1853)가 의용단에 세워져 있다. 生祠壇碑로는 ‘(동래)부사閔永勳生祠(壇)碑’(1837) ‘(기장)현감吳胤泳生祠壇碑’(1868) ‘御使李道宰生祠壇’(기장군, 1883) ‘(동래)부사李沆생사비’(1887) ‘(기장)현감吳榮錫생사단비’(1893) 등이 있고, 去思壇碑로는 ‘부사姜必履거사단비’(동래구, 1708) ‘부사尹弼秉거사단비’(동래구, 1795) ‘수사李郁延거사단비’(수영구, 1806) ‘수사尹永夏거사단비’(수영구, 1875) 등이 있다. 생사단비나 거사단비는 세워진 형태로 보아서는 송덕비와 거의 같지만, 송덕비와는 달리 공덕을 칭송하는 4言의 銘文이 새겨져 있지 않아 엄연히 성격이 달랐다.

부산지역 조선시대의 비석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頌德碑이다. 일명 善政碑라고도 하지만, 그 명칭은 실로 다양해서, 永世不忘碑·遺愛不忘碑·清德善政碑·清德善政萬古不忘碑·清德去思碑·清政恤民碑·萬世頌德碑·萬功不忘碑·千秋萬世遺傳不忘碑 등등 좀 과장된 표현으로 붙여지기도 했다.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 낙동강을 끼고 있는 사상구에는 築堤惠民碑가 세워졌고, 바다를 주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기장군에는 救海不忘碑나 撫恤海氓善政碑 등이 세워졌다. 이들은 주로 관장이 이임해 가거나 부임해 오는 길목에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향교에서는 별도로 興

學碑를 세워 교육정책에 공로가 높은 관장의 공덕을 칭송하기도 했다. 송덕비를 세운 주체는 대부분이 향청의 아전들이며, 더러 마을의 향민들이 공동으로 세우거나, 군졸들이 상관의 은혜에 감사하여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위의 분포도에서 보듯이 시기별로는 19세기에 가장 많은 송덕비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송덕비를 세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비석이 세워진 시기와 근무시기를 비교해 보면, 부사나 현감에 재직하고 있던 기간에 자신의 송덕비가 세워지는 부조리도 적지 않았으며, 또한 공덕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세우기도 하여, 이 송덕비 자체가 부패와 민폐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것이다.

墓碑는 묘소 앞이나 墓道에 묘주인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여 세우는 비석 일체를 가리킨다. 墓表·墓碣·神道碑 등이 있으며, 고승의 경우 부도 앞에 세운 塔碑도 이에 해당된다. 묘비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세워졌지만, 조선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부산지역에 세겨하며 향반계층의 중추역할을 했던 주요 문중의 시조나 중시조의 묘비가 주목되어야 하겠다. 대표적으로 동래정씨의 始祖墓가 있는데, 그 곳에 ‘東萊鄭氏始祖戶長鄭文道墓碑’(1701)와 ‘鄭墓碑’(1732)가 세워져있다. 이 외에 부산지역으로 옮겨와 세겨하며 문중을 이룬 집으로 江陵 金氏·礪山 宋氏·坡平 尹氏·平澤 林氏·昌原 鄭氏 등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기 재실을 마련하여 문중의 선산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도 몇 기의 조선시대 묘비가 세워져 있지만, 『부산금석문』에는 아직 이 묘비들이 모두 조사되지는 못했다. 탑비의 경우, ‘蓮坡堂大師快澗碑’(1775) ‘仙巖堂明悅大師碑’(1798) ‘禪教兩宗月照堂大禪師塔碑’(1844) 등이 기장군 長安寺에 전한다.

효자·열부를 포상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내려졌던 旌閭碑는 모두 7기가 전한다. ‘열녀월성김씨정려비’(1741, 기장군)가 가장 이르고,

이후 ‘열녀金孝文처김해김씨정려비’(1789, 금정구)와 ‘효자故土人金碩崇정려비’(1829, 강서구) ‘효자具周星정려비’(1842, 사상구) ‘효자鄭正佑정려비’(1843, 수영구) ‘효자千乘昊·열녀경주이씨정려비’(1872, 북구) ‘한량밀성朴春興처열녀월성박씨정려비’(년대미상, 동래구) 등이 세워졌다.

병인양요 이후 1871년에 전국 각 고을마다 斥洋의 기치 아래 ‘斥和碑’가 일제히 세워졌는데, 부산지역에 모두 3개의 척화비가 전하고 있다. 동래부에 세워졌던 것은 지금 부산박물관에 이관되어 있고, 그 외 기장군의 척화비와 가덕도의 척화비가 있다. 이는 洋夷와의 화친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약조처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외에 또 특이한 비석으로 ‘約條制札碑’(1683, 남구)가 있다. 이 비석은 숙종조에 왜관에 거류하는 日人들과 조선상인들 사이에 은밀히 자행되었던 문란한 무역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조약을 새겨 왜관 안에 세워두었던 것이다. 이처럼 규약을 새겨 세워둔 비석은 조선시대에 찾아보기 드문 것으로 금석문연구의 참신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일체의 비석들의 부류를 條約碑라고 명명해 보았다.

요즘도 시나 노랫말을 돌에 새겨 그 창작의 현장을 기념하는 일이 더러 있듯이, 조선시대에도 간혹 암각을 하거나 시비를 세우는 형태로 한시창작의 현장을 기념하곤 했다. 부산지역에 세워진 시비로는 현재 2개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1867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현덕시비’인데, 대원군의 심복이었던 鄭顯德이 동래부사로 부임했을 때의 감회를 노래한 시를 새긴 것으로 본래 어디에 세워져 있었던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고, 현재는 동래금강원에 옮겨져 있다. 또 하나는 태평원이라는 동산에서 풍광을 노래한 ‘太平園詩碑’인데, 이것도 당시 부사였던 정현덕이 지은 것이다. 태평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시의 내용에 나오는 太平橋 萬年臺 萬年橋 등의 위치도 알 수 없지만, 현재 이 비석은 동래유치원 안에 방치되어있다.

부산진지성(자성대)의 서문 입구에 보면 좌우로 두 개의 지석이 서있는데, “南徼咽喉” “西門鎖鑰”이라고 각각 새겨져 있다. 이 금석문의 성격을 분류하기가 애매한데, 부산진지성문의 기능과 역할을 웅변적으로 알리는 것이어서 편의상 標識石으로 분류해 보았다.

돌을 채취하여 비석형태로 다듬은 다음 글을 새기는 금석문과는 달리 자연석 위에 바로 글을 새기는 巖刻文이 있다. 여기에는 주로 바위나 樓臺의 이름을 크게 새겨두거나 승경을 읊은 제영시를 새겨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국적으로 승경지에 가면 그 곳을 찾아왔던 詩人墨客들의 題詠詩가 바위 곳곳에 새겨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부산지역에도 모두 두 곳이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범어사 청룡암에 새겨진 東岳 李安訥의 제영시이고, 또 하나는 기장군 侍郎臺 주변에 새겨진 兪謙 權謫(1657~1755)과 孫庚鉉(1894년에 기장군수로 부임)을 위시한 시인들의 제영시이다. 시랑대는 兪謙 권적이 찾아 유람한 곳이라 하여 그의 직함을 따서 붙인 이름인데, 그 곳의 큰 바위에는 또 ‘學士巖’이라는 글씨가 각석되어 있다. 학사암은 곧 손경현의 직함을 따서 붙인 것이다. 해운대에도 동백섬 끝자락에 “해운대”가 각석되어 있는데, 언제 새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글씨나 각석의 상태가 조잡하며, 주변에 제영시를 새긴 흔적은 없다.

이상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시대 금석문을 사적비·기공비·단비·송덕비·묘비·정려비·조약비·시비·표지석·암각문 등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금석문의 성격에 따라 10종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통해 부산지역 금석문의 양상을 정리해 본 것이다. 보다시피 금석문의 성격과 기능은 다양하다. 그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에서 금석문이 조성되었지만, 금석과 같은 재질에 새겨 보존함으로써 언제나 지켜보며 기념코자 했던 점은 동일하다. 결과 오랜 것은 300여 년 짧은 것은 100여 년 동안 굳건하게 사적의 현장을 지키

며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오늘까지 우리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Ⅲ. 부산지역 금석문의 연구전망

이렇듯 적지 않은 수의 금석문이 부산지역에 전하고 있고,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증언에 무관심해 왔다. 이는 일반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헌을 전공하는 연구자들 역시 그랬다. 사실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금석문들도 있고, 위의 분류표에서 송덕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게다가 이 금석문의 내용들을 방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것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한 원인이라면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와 문헌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대개 크고 비중 있는 중심의 자료들에만 관심을 두었지, 사소한 주변적 자료들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금석문 역시 각 지역에 단편으로 흩어져 있는 주변자료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 주변적이고 미시적인 자료들도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고 있으며, 단편적인 자료들도 그 조각의 재구성을 통해 어느 정도 전체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자료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이 절실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상상력이다. 금석문연구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아 시도되어야 한다.

그러면 부산지역 금석문의 경우 이 자료들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금석문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고 활용하기 위해 그 방법을 모색하고 전망해 보기로 하자.

1) 頌德碑의 문헌적 가치

송덕비는 부산지역 조선시대 금석문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부산광역시에는 옛 동래부와 기장군, 그리고 좌수영과 김해부의 일부까지 넓게 차지하고 있어, 전하는 송덕비도 동래부사·기장현감·좌수사의 것이 가장 많고, 아울러 소속 진이었던 부산진 첨사·다대진 첨사·가덕진 첨사·절영도 감목관 등의 것도 전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민폐를 바로잡아주었던 경상도관찰사나 御使의 송덕비도 일부 전하고 있다. 본래 송덕비는 문자 그대로 자기 고을이나 부서의 官長으로 부임하여 善政을 베푼데 대한 보답으로 그 덕을 칭송하여 만세에 그 은덕을 전하려는 목적에서 세워졌다. 그러나 그 평가가 그렇게 엄정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부산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19세기에 이르러 이전 시기에 비해 많은 송덕비가 세워졌던 것을 보면, 후대로 내려오면서 송덕비 건립의 기준이 매우 느슨했다고 본다. 오히려 양심적이고 청렴한 인물일수록 자신이 이임해간 뒤에 그 고을에서 자신의 송덕비를 세우지 못하도록 단단히 단속했던 것을 보면, 송덕비 건립 자체가 하나의 민폐로 작용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송덕비는 立碑 대상인 인물의 개인적인 명예와 관련되어 그 후손들에게는 조상에 대한 영예로운 기념물로서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한편 그것은 이 지역의 民政에 대한 치적과 관련된 것이므로, 실제 그 분들의 치적에 대한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송덕비는 금석문 가운데 가장 주목받지 못해온 것인데, 그것은 그 비석의 가치 즉 입비 대상 인물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령 양산의 경우 향교 앞에 즐비해 있는 송덕비들 가운데 다른 비석에 비해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양산군수로 부임했었던 江左 權萬(1688~1749)의 비석이다. 그것은 그 비석이 오래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인물됨과 치적이 잘 알려진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송덕비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비된 인물의 실제 치적을 가능한 밝

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폭넓은 자료의 검색이 요구된다. 자료가 충분치 못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필자가 접한 자료 가운데 박규수의 『繡啓』⁵⁾가 있었다. 이 책은 박규수가 1854년(철종5)에 경상좌도 암행어사가 되어 경상좌도의 지방관들의 잘잘못을 조사하고 난 뒤 국왕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동래부와 기장현의 조사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前前 동래부사였던 李彙寧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띈다. 『영남읍지』⁶⁾의 『동래부』 편을 보면, 이휘령은 1851년 5월에 부임하여 1852년 7월에 고과성적이 낮아 파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동래부는 官用的 儲置米가 늘 부족해서 감영으로부터 빌려서 쌀을 사서 보충하는 편법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잡비를 충당하기 위해 왜관의 일본인들에게 공목미를 비싼 값에 쳐주고 標紙를 받은 뒤 이듬해 下納米에서 그 값을 作錢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여기서 吏校들의 공금 횡령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휘령은 부임한 뒤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공금 횡령에 부담을 느낀 吏屬들이 그를 비방하여 감영의 고과평점에서 ‘貶’을 받게 해서 파직되게 했던 것이다. 결국 짐을 꾸려 돌아갈 즈음에 그는 창고에 남아있던 재화를 털어서 학업과 농사를 권면하는 자금으로 쓰게 함으로서, 동래부 읍민들이 모두 감탄했던 일을 박규수는 간략히 보고하고 있다.⁷⁾ 지금 동래에는 ‘府使李彙寧清德善政碑’가 전한다. 그러나 이 비석은 그가 파직된 그 해에 세워지지 못하고, 1856년에 동래 유생들의 주관으로 건립되어졌고, 다시 1902년에 당시 동래부사로 부임했던 그의 외손 趙鍾緒에 의해 비각까지 건립되었던 것이다. 그 비

5) 박규수, 『수계』, 『박규수전집』 하, 아세아문화사, 1978.

6) 이 『영남읍지』는 1871년에 간행된 것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경상도읍지』 4,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2.

7) 박규수, 『수계』, 『박규수전집』 하 p904~p905, 아세아문화사, 1978.

문에는 “장부에 허위로 남아있던 적폐를/ 마음 쏟아 깨끗이 정리하셨네/ 문무와 농업을 장려하고자/ 다시 창고를 풀어 구휼하셨네”[積弊虛留, 悉心清帳. 文武農獎, 復損廩貺.]라고 칭송하고 있다.

기장현의 경우에도 역시 고과성적으로 파직된 전 현감 崔東鎭⁸⁾의 패악무도한 죄상을 『수계』에서 낱낱이 고하고 있는데, 박규수는 암행사로서 그의 죄상을 감영으로 하여금 품처토록 지시했던 것이다.⁹⁾ 그런데 현재 기장에는 ‘京邸主簿崔東鎭不忘碑’가 전하는데, 이 비석은 1880년에 세운 것이다. 그렇다면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최동진은 파직된 이후 고종조에 다시 기장현의 京邸主簿가 되었던 것인데, 여기에 그의 송덕비가 세워진 것은 적지 않은 의혹을 품게 한다. 또한 이 비석이 가운데에 두 동강이 난 것을 붙여 놓은 것임을 보면 더욱 그렇다.

또한 송덕비는 입비된 인물의 치적과 관련되어 지방행정에 관한 사료적 가치도 매우 높다. 김해부의 중요한 산업원의 하나는 소금생산이었다. 당시 명지도에서는 솔에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煮鹽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기에는 公鹽이 설치되어 매해 일정한 량의 소금을 나라에 바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공염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監色이 파견되어 있었고, 이들은 갖은 명목으로 鹽民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더러 관문서를 통해 일부 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폐단을 시정한 관장들의 송덕비를 통해서도 그 내막과 사정을 전해주고 있다. ‘巡相國金公諱相休永世不忘碑’와 ‘巡相國洪公在喆永世不忘碑’의 碑陰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석되어 있다.

8) 『영남읍지』 『기장현』 편에 의하면, 通訓大夫 崔東鎭은 무관으로 서울에 거주하며, 1852년 6월에 부임해서, 1853년 12월에 성적 ‘貶’으로 파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9) 박규수 『수계』, 『박규수전집』 하 p938~p940, 아세아문화사, 1978.

본 섬의 폐단을 구제하는 조목

대개 鹽丁에게 함부로 잡역을 부과하는 것은 오로지 所任鹽民에게서 비롯된다. 그래서 소임은 영원히 혁파하노라. 당초 소임의 폐단은 또한 蒜倉의 監色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감색에게는 별도로 察飭을 더하여, 이후로 경비의 지출은 하나같이 새로 판각한 절목에 따라 首鹽民이 거행토록 한다. 또한 禁松을 摘奸하는 자가 섬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계유년의 啓下節目에 이미 있고, 漕船과 公船의 사공과 各軍廳의 掌務와 御禁軍의 선발에 鹽民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은 기묘년 절목이 있고, 舟師軍들이 섬사람을 침범하지 말 것과 各邑에서 鹽船을 붙잡는 병폐에 대해서는 매해 보내는 關飭과 전후의 題節에 마련되어 있다. 이제 모두 잘못을 바로잡아 길이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에 비석에 새겨두노라.¹⁰⁾

영조 을축년(1745)에 처음 公鹽을 설치하였을 때 72개의 솔을 건 영전을 두었는데, 점차 축소되어 37개의 솔만 남았고, 게다가 지금 뿔감이 귀하기가 금과 같다. 연례로 공염 3천석을 바치는데, 한 석의 원가가 한 냥 5전이니, 합 4천 5백 냥이고, 그 외 임자년에 정한 한 석의 뿔감 값이 5전으로, 합이 천 오백 냥이지만 거의 만에 하나 정도 채울 뿐이라고 한다. 우리 관찰사께서 남쪽으로 오신 이듬해 신축년(1841) 가을에 걷어야 할 소금 1천석을 매 석당 열 냥으로 뿔감 값 2천 냥을 응당 시행할 전례로 만드셨다. 그래서 매 년 3천 냥으로 바로잡아 주셨으니, 이전 수백 년 동안 없었던 은혜요, 뒤로 몇 백 년 동안 썩지 않을 은택이다. 그러므로 썩지 않을 돌에 새겨 둔다.¹¹⁾

- 10) 巡相國金公諱相休永世不忘碑：“本島掾弊條目。蓋鹽丁之濫雜，專由於所任鹽民，故所任則永爲革罷，當初所任之弊，亦由於蒜倉監色。故使監色，另加察飭，而自後應下則一從新板刻節目，以首鹽民舉行。且禁松摘奸之勿入島中，既有癸酉啓下節目，漕船與公船沙工及各軍廳掌務與御禁軍之勿侵鹽民，又有己卯節目，舟師軍之勿侵島民及沿江各邑執船弊之每歲關飭，又有前後題節。而至乃咸使矯揉而永遵，故爰刻于石。”
- 11) 巡相國洪公在詰永世不忘碑：“與在英廟乙丑年，公鹽設始之初，七十二釜之鹽田，漸縮爲三十七釜，而況今柴政，其貴如金。年例納公鹽三千石，每石元本價，一兩五錢，合四千五百兩，外壬子年所創每石柴價五錢，合一千五百兩，庶幾乎萬一之補云爾。又我巡相國，按南之越明年辛丑秋，當奉鹽一千石，每石十兩式，添補柴價而一千兩，登先劃下，春等鹽二千石，柴價二千兩，已是應行之例也，然則每年三千兩矯揉，前數百年所未有之惠，後幾百年所不朽之澤。是以被之不朽者石。”

이 두 편의 비음기문을 통해 당시 김해 명지도 공염이 1745년에 처음 설치된 사실과 땀값을 구하기 어려워 솔의 수가 축소되었다는 것과 그에 따라 제도가 1841년에 보완되었다는 점을 전하고 있으며, 공염을 감독하는 감색들의 비호 아래 소임염민들에 의해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임염민 제도는 완전히 허파해 버렸으며, 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일반 상선들이 소금을 사기 위해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처분했던 사정을 알려주고 있다. 이 내용들은 영남의 公鹽 운영에 대한 사정으로서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영도구의 ‘行僉使申公膺均永世不忘碑’는 頌辭에서 “영도가 鎭營으로 다시금 승격되니/ 우리 첨사 오시기를 기다렸다네.” [鳥鎭陞復, 俟我侯蒞.]라고 하여,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影島가 鎭으로 승격되어 僉使가 파견되었던 사실을 전해주며, ‘行僉使任公翊準永世不忘碑’에서는 “관청건물 수리하여 광채 더하고/ 재물모아 두루두루 베풀었다네” [繕廡增耀, 留賄施普.]라고 하여 첨사영의 관청건물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사상구에 있는 동래부사 李敬一·朴齊明·李明迪 등의 築堤惠民碑에서는 사하면 일대가 낙동강의 범람으로 인한 수재가 심각했었던 사실과 이를 막기 위한 축제사업의 진행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전한다.

이처럼 官長의 은덕을 칭송하는 頌德碑라 하더라도 고을의 행정을 책임지는 首長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기 마련이어서, 비석에 새겨진 頌辭와 碑陰記 등의 내용을 꼼꼼히 판독하여 분석하고, 해당 인물이나 시기에 관련된 방증 자료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당시 지방행정에 관련된 소중한 내용들을 고찰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분석을 통해 자료적 가치가 발견되면, 그 송덕비 또한 문화재로서 소중한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2) 지역 인물사연구의 자료

일반적으로 금석문에는 立碑의 대상이 되는 인물과 그 비문을 지은 사람, 비문의 글씨를 쓴 사람, 또 자금을 내거나 일을 주관하는 등 그 비석을 세우는데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지기 마련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입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송덕비의 경우를 보면 입비 대상인물은 거의 타지의 인물들일 뿐이다. 그보다 비석을 건립하는 일을 주관했던 인물들이야말로 이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일 것인데, 이들의 존재는 아직 우리 지역사 또는 인물사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금석문은 소중한 자료적 가치를 품고 있어, 금석문연구의 또 다른 전망을 가능케 한다.

부산지역에 전하는 조선시대 금석문에는 이 지역에 몸담고 살았던 술한 인물들의 이름이 새겨 전하고 있다. 가령 ‘萊州築城碑記’에는 碑陰에 동래읍성 축성 때의 差任들의 명단을 새겨두었는데, 100명이 넘는 인물들의 이름이 남아있다. 동래읍성을 축성하기 시작한 것이 1731년이므로, 鄉廳의 간부와 鄉班들, 그리고 武任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했던 이들, 물품조달과 관리 등을 맡았던 吏胥들에 이르기까지 당시 동래 지역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망라되었다고 본다. 이들의 존재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현재 충분히 남아있지 않다. 더구나 조선시대 동래는 중앙으로부터 소외된 주변의 지역으로, 역사자료의 주를 이루는 중앙 지배층의 기록물에는 한갓 미미한 변방지대에 불과했고, 그 곳에 사는 인물들 역시 그 이름조차 거명될 여유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 곳에 남겨진 금석문에는 그 소중한 이름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예로 동래 지역에 鄉廳에서 세운 비석들을 통해 당시 향청의 수반인 座首와 別監들의 명단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東萊鄉案』이 남아 전하고 있지만, 이 향안은 1598년에 처음 만들어져 1695

년까지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이후 향청을 맡았던 인물들의 면모를 알 수 없었다. 비문에 새겨져 전하는 座首와 別監들의 명단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년기	座首	別監	碑名
1635	辛萬齋	文承昌·李命老	利涉橋碑
1640	金綵鍾	文啓俊·文汝郁	府使姜公大遂善政碑
1645	文啓後	宋繼裔·朴友桂	府使李公元鎮清德善政碑
1646	文啓後	宋繼裔·朴友桂	府使黃公호清德善政碑
1731	朴就夏	文世南	萊州築城碑記
1735	金夏三		府使鄭公諱彦變興學文化去思碑
1765	李重烈		萊州築城碑記
1811	鄭有一	辛東珪·文鳳來	府使黃公一夏永世不忘碑
1818	金天鍵	文禹海·鄭夏珪	府使尹公魯東清德善政碑
1818	辛台鼎	宋載禧·文禹海	府使吳公翰源清德善政碑
1820	辛台奎		萊州築城碑記
1839	孫星馱		府使曹公鳳振永世不忘碑
1856	文秉憲	文翊祥	府使李公彙寧清德善政碑
1872	金 燾		府使鄭公顯德永世不忘碑
1884	文秉喜		府使金公善根永世不忘碑
1890	文有鳳		府使李公容植永世不忘碑
1892	朴銓海		府使金公鶴鎮永世不忘碑

향청에서 주도하여 세운 비석인 경우 都監의 이름과 함께 좌수와 별감 등의 이름을 새겨두었던 것인데, 동래 지역의 중요한 사적비나 송덕비의 건립에 향청이 주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래부의 경우

송덕비를 吏廳이나 武廳 또는 面任이 주도하여 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향청에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본다. 왕의 특명이나 朝廷 주도의 사업이 아닌 지방행정 단위의 사업에서 동래 향청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위에 등장한 좌수나 별감의 이름은 『東萊鄉廳鄉校考往錄』에 실린 문서에서도 더러 확인되는 바이다. 시기별로 좌수와 별감의 명단이 모두 밝혀졌으면 좋겠지만, 미진하나마 이 정도 살펴볼 수 있는 것도 결국 금석문 자료 덕분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동래 지역의 엘리트로서 이들 향임들의 활동과 역할을 규명해 가는데 보조 자료로서 이들 금석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리라고 본다.

이 외에 旌閭碑와 墓碑의 경우도 개인 인물사와 家門史를 고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다. 조선시대 동래 지역에 거주했던 향반 가문은 여러 곳이 있다. 동래 정씨·강릉 김씨·경주 김씨·려산 송씨·파평 윤씨·평택 임씨·창원 정씨·남원 양씨·남평 문씨·월성 박씨·죽산 박씨·은진 송씨·포산 곽씨·청도 김씨 등등이 있다. 이 집안들은 대개 선산이 있고, 더러 재실을 마련하여 착실하게 관리해 오고 있다. 이들 산소는 대대로 잘 관리되어 왔고, 묘비도 반듯하게 세워져 있다. 동래 정씨 시조묘인 ‘鄭墓碑’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외 집안들의 묘비도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부산금석문』에는 이들 묘비가 조사에서 모두 빠져있는 것이 아쉽다. 개인 집안의 것이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향후 부산지역 인물사의 연구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가령 강릉 김씨의 선산이 있는 금정구 仙洞에는 ‘北溪先生江陵金公墓碣’ ‘淑夫人東萊鄭氏墓碣’ ‘將仕郎參奉江陵金公墓碣’ ‘贈通政大夫兵曹參議栢翠先生江陵金公墓碣’ 이 있어, 이들 개인의 생애뿐만 아니라 가문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다.

이상 부산지역 조선시대 금석문 자료의 가치를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 대략 두 가지 측면에서 전망해 보았다. 물론 금석문 연구가 이 두 가지 전망뿐일 수는 없다. 단지 필자의 역량 안에서 금석문 자료의 가치를 찾기 위한 가능성을 제시해 본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 지역 문화와 역사의 흔적인 금석문은 그 가치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찾아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애정이다. 의례히 세워져 있는 돌조각으로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이 비석이 왜 여기에 무슨 이유로 세워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굳이 금석에 새겨 오래토록 기념하려 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IV. 부산지역 금석문의 활용방안

금석문 자료의 가치는 정리와 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현재적 활용이 이루어질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일찍이 부산광역시는 부산지역사 사업의 추진방향 가운데 “시민이 생활공간 속에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료의 발간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역사의 체계적 정립과 부산정체성 확립의 기반구축”을 설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역사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부산의 정체성을 찾도록 하자면, 금석문 자료는 좋은 활용가치를 지닌 문화재이다. 금석문은 다른 문화재자료와는 달리 역사성에 지역성과 현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

역향토사의 중요한 내용이 새겨져 그 사적의 현장에 세워지는 특성을 살려서 시민들의 역사체험과 부산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면 더없는 문화재적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산지역 조선시대 금석문의 활용방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점검해보기로 하자.

1) 금석문 자료의 보호와 정비

금석문 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금석문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유적지에 세워져 있는 비석들은 유적지의 관리와 함께 잘 보존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석들은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 동래 금강공원에 옮겨져 있는 비석들과 수영공원에 모여 있는 비석들은 물론이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들은 관청의 관리소홀과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금석문 자료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금석문 자료 가운데 현재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12종이다. 온정개건비(제14호)·금정산성부설비(제15호)·내주축성비(제16호)·약조제찰비(제17호)·척화비(제18호)·부산진지성서문성곽우주석(제19호)·정운공순의비(제20호)·동래남문비(제21호)·이섭교비(제30호)·가덕도척화비(제35호)·기장척화비(제41호)·해운대석각(제45호)이 그것이다. 그러나 비석의 건립 시기나 내용적 가치 면에서 보더라도 이들 기념물에 못지않은 것이 많다. 가령 자성비·대부교비·임진전망유해지총비·사처석교비·충장공정발전망비·청강교비·객사건성비·제석동신축제언비·유원각선생매안감고비 등도 역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금석문들이다. 이들에 대한 면밀한 조

사와 심의를 통해 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선정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연대가 오래되었거나 사료적 가치가 있는 선정비만 개별적으로 기념물 지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선정비는 본래 관장이 부임해오는 길목에 무리지어 세웠던 것이므로, 碑群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역별 善政碑群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로 금강공원과 동래향교 등지에 있는 동래부사들의 선정비는 ‘東萊府善政碑群’으로, 수영공원 등지에 있는 水使와 虞侯들의 선정비는 ‘左水營善政碑群’으로, 다대초등학교의 다대첨사 선정비 등은 ‘多大鎭善政碑群’으로, 기장초등학교 앞의 현감과 관찰사들의 선정비는 ‘機長郡善政碑群’ 등으로 일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으로 모든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강공원에 있는 내주축성비나 이섭교비 등은 그냥 숲 속에 방치되다시피 되어있어 얼마든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석의 현장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본래 그 비석이 세워져 있던 자리로 다시 옮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금석문 자료들을 보면 본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는 비석은 얼마되지 않는다. 대개 단비나 묘비·정려비·암각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옮겨져 있다. 일제 때부터 최근까지 근대화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정책에 밀려 비석들은 하나같이 애물로 취급되어 후미진 구석에 옮겨진 채 방치되었던 것이다. 그 중 사료적 가치가 큰 것들은 현재 부산박물관에 옮겨진 것도 있고, 금강공원에 임의로 옮겨진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 위치에 자리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석의 역사적 가치는 거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동래남문비’는 동래 남문이 있던 자리에 있어야 시민들이 보고 이곳에 동래읍성

남문이 있었고, 이 곳에서 임진년 전쟁 때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싸우다 죽었구나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지금 동래 경찰서와 소방서가 있는 그 자리이다. 그런데 그 비석은 현재 부산박물관 담벼락 그늘진 곳에 여러 기의 비석들과 나란히 서있다.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은 비면의 돌이 다 떨어져 나가 처참한 꼴골이 되어버린 '동래남문비'를 보며, 동래남문과 그곳의 역사적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부서진 비석만 안타까워할 뿐이다. 다른 비석들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섭교비'의 경우도 利涉橋가 어디 있는 다리이며 어떻게 해서 놓여진 다리인지 시민들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제 모든 비석들은 가능한 본래의 자리로 복귀되어야 한다. 事蹟의 역사적 의미도 이 비석의 복귀와 함께 시민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날 수 있고, 동시에 비석도 소중하게 관리될 수 있다. 물론 비석들을 제 위치로 복귀시키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토지매입이나 보존관리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시민과 구민들을 위한 역사문화의 체험공간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나 각 구청에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설령 그마저 어렵다면 시민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 '금석문테마파크'와 같은 공간을 마련하고, 비석들을 옮겨 잘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부산지방의 사적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토록 해 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비석의 보존방법에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최근 산성비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무리 재질이 금석이라 할지라도 비바람에 영구히 보존될 수는 없다. 예로 '동래남문비'만 보더라도 석질이 잘못된 탓인지, 300년 넘게 내려오면서 비석 앞면은 거의 떨어져나가 비문의 내용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西門外石橋碑'나 '虎川石橋碑' 등의 경우도 비면의 마모로 인해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비석들

의 보존상태를 보면, 거의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산성비는 물론 홍수에 의한 산사태나 심지어 동물들의 방뇨에 의한 침식에도 무방비한 상태이다. 이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터인데, 만약 비석들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킨다면 그 때 碑閣을 세워 보존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시민을 위한 역사·문화콘텐츠로의 활용방안

금석문을 사적의 현장에서 직접 보며 시공간의 역사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문화유산을 좀 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데에는 이것을 대중화하고 실용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시대의 금석문은 단순히 돌이나 금속 위에 한 문으로 새겨진 것이지만, 그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은 온통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일반 대중들이 비석의 성격을 이해하고 내용을 읽어 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대중화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역사·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먼저 금석문의 탁본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탁본은 비석의 원형에 대한 표본으로서, 비문의 내용은 물론이요, 비문의 서체까지도 원형 그대로 본뜨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비석이 깨어지거나 마모가 되어도 탁본자료가 있으면 다시 원형을 살려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탁본은 딱딱한 금석 위의 글씨를 부드러운 종이 위로 옮김으로서 금석문의 예술적 미감을 살려서 보여준다. 이처럼 비석과는 또 다르게 탁본자료 독자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간혹 우리는 좋은 탁본 작품을 보고 있을라치면 훌륭한 서예가의 아름다운 글씨 한 폭을 감상하는 기쁨을 느끼곤 한다.

이렇게 확보한 탁본자료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선 도록을

만들어 보급하고,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일들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부산박물관 내에 '금석문자료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곳에서 탁본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하고, 다양한 기획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관람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석문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내용검색이 수월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며, 금석문과 탁본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강좌도 열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콘텐츠사업으로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부산시 금석문지도를 작성하는 일이다. 이것은 부산시 문화지도의 작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일인데, 부산시 지도상에 금석문들의 현 소재지와 사적지를 표기하여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다. 이 지도는 온라인에서는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가령 찾고자하는 금석문을 선택하면 그것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나타나고, 그 곳을 선택하면 그 비석의 내용과 그림을 보여주며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 금석문을 통해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디어의 다양한 매체들이 동원되어, 어린 학생에서부터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조선시대 금석문의 현황을 개괄하고, 이어 금석문 연구의 전망을 짚어본 뒤 그것의 활용방안을 몇 가지 모색해 보았다. 물론 이것으로 전망과 방안을 모두 살폈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필자가 그간 생각해 왔던 점을 제안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발판으로 앞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연구방법과 활용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석문이라는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이 절실하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꺼안고 가야할 것들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강박관념에 너무 쫓기다보니 우리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히 하였다. 특히 부산은 지정학적 특성상 문화적 교섭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인 때문에 밀려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에 급급한 나머지, 자기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적 이해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물론 이런 경향에는 문화정책의 기획자나 연구자들의 책임이 크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전날에 비해 우리 부산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 대학의 교양강좌나 사회교육기관의 교양프로그램, 각 단체의 문화유산답사 기획,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등의 과정을 통해 관심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과제는 많다. 이런 강좌나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개발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부산지역의 금석문은 개발되어야 할 좋은 재료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활용되어야 한다.